한국문학논총 제34집(2003. 8) pp. 381~407

18세기 야담집의 동일 구전이야기 수용과 그 의미

정 준 식*

차 례

Ⅰ. 서론
Ⅱ. 18세기 야담집의 동일 구전이야기 수용 방식
1. 구비전승의 단순 수용
2. 의도적 개작에 의한 변용
3. 구비전승에서의 변화와 의도적 개작의 결합
Ⅲ. 동일 구전이야기 수용의 야담 형성적 의미
Ⅳ. 결론

Ⅰ. 서 론

야담은 조선후기 이야기문학의 발달과정에서 배태된 장르이다. 유몽인의 ≪어우야담≫에서 비롯된 조선후기의 야담은 18세기에 이르러 그 장르적 성격을 견고히 다지며 다양한 발전을 모색하다가 19세기에는 와서는 무수한 야담집의 출현과 함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그런데 야담에 관한 기왕의 연구 성과를 보면,[1] 17세기의 ≪어우야담≫과 19세기의 주요 야담집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 부산대 국문과 강사

1) 야담의 연구성과에 관한 논의는 김준형, 「야담 연구사」(정명기 엮음, 『야담문학 연구의 현단계』 3, 보고사, 2001)를 참조할 것.

진척된 데 비해, 18세기의 야담집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했음이 드러난다.

필자는 최근 ≪어우야담≫이 나온 이래 조선후기의 야담이 어떤 경로를 통해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되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8세기 야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18세기의 야담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그 시기 야담집 사이의 관련 양상은 어떠했는가를 실상에 부합되게 밝혀내야 조선후기 야담문학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18세기 야담집의 저자와 저작시기를 밝힌 연구가 여럿 나와 있어서[2]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18세기의 야담집으로는 任堕(1640~1724)의 ≪天倪錄≫, 盧命欽(1713~1775)의 ≪東稗洛誦≫, 朴亮漢의 ≪梅翁閑錄≫, 柳光翼(1713~1783)의 ≪楓巖輯話≫, 辛敦復(1692~1779)의 ≪鶴山閑言≫, 安錫儆(1718~1774)의 ≪雪橋漫錄≫, 任邁(1711~1779)의 ≪雜記古談≫, 沈鎔(1722~1784)의 ≪松泉筆談≫, 李東允(1727~1809)의 ≪樸素村話≫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매옹한록≫, ≪풍암집화≫, ≪송천필담≫을 제외한 나머지 야담집은 대체로 저자의 견문을 토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각기 독자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금까지의 야담 연구에서는 18세기 야담집에 대한 논의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야담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온당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18세기 야담집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조선후기 야담의 형성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동일한 근원에서 생겨난 구전이야기가 유독 18세기의 여러 야담집에 함께 올라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18세기 야담집이 이 시기에 전승되던 동일

---

2) 이원걸, 「≪송천필담≫ 연구」, 『안동한문학논집』 제4집(안동한문학회, 1994) ; 진재교, 「≪잡기고담≫의 저작연대와 작자에 대하여」, 『서지학보』 제12호(서지학회, 1994.3) ; 「≪천예록≫의 작자와 저작연대」, 『서지학보』 제17호(서지학회, 1996.1) ; 김상조, 「≪학산한언≫ 연구」, 『국문학보』 13,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1995 ; 정준식, 「≪박소촌화≫의 저작자와 저작연대」, 『어문연구』 39(어문연구학회, 2002.6).

구전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조선후기 야담의 형성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를 짚어보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Ⅱ. 18세기 야담집의 동일 구전이야기 수용방식

18세기의 야담집에 올라 있는 작품들은 전대의 문헌을 수용한 것보다 야담 저자가 견문한 바를 작품화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특징은 이미 ≪어우야담≫에 잘 나타나고 있는바, ≪어우야담≫에서부터 18세기의 야담집에 이르기까지는 대체로 저자의 견문이 야담형성의 주된 동력원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검토하게 될 자료들은 동일한 근원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전이야기가 18세기의 여러 야담집에 함께 수용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되는 작품과 그것을 수록한 문헌을 들면 다음과 같다.[3)]

<女俠> : ≪雪橋漫錄≫·≪雜記古談≫·≪樸素村話≫
<徽欽> : ≪雜記古談≫·≪樸素村話≫
<柳成龍의 癡淑> : ≪東稗洛誦≫ ≪樸素村話≫·<居士歌>
<蜈蚣村> : ≪松泉筆談≫·≪樸素村話≫
<朴彦立> : ≪雜記古談≫·≪鶴山閑言≫·≪樸素村話≫
<復讐說> : ≪雪橋漫錄≫·≪鶴山閑言≫·≪訥隱集≫
<達文> : ≪樸素村話≫·≪秋齋紀異≫·<張福先傳>·<廣文者傳>·<達文歌>

위에 제시한 작품들은 모두 18세기 당시 항간에서 널리 전승되던 이야기로

3) <女俠>, <復讐說>은 원래의 제명을 그대로 가져왔고, 나머지 작품의 제명은 작품의 내용을 고려하여 필자가 임의로 부여한 것임을 밝혀둔다. 여기에 제시된 작품들 중에는 간혹 야담집이 아닌 개인 문집에 수록된 것도 있다. 그러나 어디에 수록되었건 소개된 작품 자체는 야담적 성격을 지닌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홍신유의 <達文歌>, <居士歌>는 장편 한시로 되어 있지만 <達文>, <柳成龍의 癡淑>의 전승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기에 본고의 논의에 포함시켰다.

서 야담 작가의 손을 거쳐 문헌에 오른 것들이다. 주지하듯, 구비전승이 문헌에 정착될 때에는 여러 요인에 의해 다양한 변화가 수반되기 마련인데, 그 변화는 이미 구비전승의 과정에서 나타났을 수도 있고, 야담 저자의 의도적 개작에 말미암을 수도 있으며, 이 둘의 결합에 의해 생겨날 수도 있다. 이하 이런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면서 7편의 작품이 문헌에 수용된 방식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구비전승의 단순 수용

야담 작가가 시정에 떠돌던 구비전승을 별다른 개변 없이 수용하는 것은 가장 일반화된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작품으로는 <女俠>, <徽欽>, <柳成龍의 癡淑>을 들 수 있다.

<女俠>은 ≪삼교만록≫, ≪잡기고담≫, ≪박소촌화≫에 수록되어 있는데, ≪잡기고담≫에만 <女俠>이란 題名이 있고 다른 두 곳에는 제명이 없다. 安錫儆은 이 이야기를 丹翁(민순지)에게 들었다고 했고, 任邁는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시 전해오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것이 분명하며, 李東允은 그의 벗 洪福一에게 전해 들었다고 했다. 두 처녀가 劍術을 익혀 부친을 죽인 원수에게 복수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기본 골격인데, 세 유화는 이야기의 구성방식, 두 처녀의 관계, 부친이 죽게 된 계기, 복수의 방법 등에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야기의 구성방식을 보면, ≪삼교만록≫의 <女俠>은 주인을 도와 복수를 완수한 婢가 나중에 소응천이란 사대부의 첩이 되어 살면서 그에게 자신의 復讐談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복수를 실천한 두 처녀는 主從의 관계인데, 주인은 복수를 완수한 뒤에 자결하였고 살아 남은 婢는 주인의 명에 따라 소응천의 첩이 되었다. 그러나 婢는 소응천이 자기가 바라던 천하의 奇士가 아님을 알고는 그에게 신기한 검술을 보여주고 떠나버렸다. 이에 비해 ≪잡기고담≫, ≪박소촌화≫의 <女俠>은 두 처녀가 어떤 士大夫家에 유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사대부를 ≪잡기고담≫에는 원주의 '丁時翰'으로, ≪박소촌화≫에는 마포의 '정선비'로 설정해 놓았다. 두 처녀는 한밤중에 복수의 일을 의논하다가 집주인에게 들키자, 그에게 부친이 죽게 된 내력과 복수의 대상을 말해준 다음 집을 나가서 원수를 죽이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이와 같이

세 유화는 두 여인이 원수를 죽여 복수를 완수한다는 공통의 줄거리를 보이지만, ≪삽교만록≫의 <女俠>이 등장인물의 직접적인 진술을 통해 復讐事의 내막을 들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 비해 ≪잡기고담≫, ≪박소촌화≫의 <女俠>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그것을 재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女俠>의 주요 등장인물인 두 처녀의 관계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삽교만록≫과 ≪박소촌화≫에는 주종관계로 되어 있고, ≪잡기고담≫에는 자매관계로 되어 있다. 원래 이 이야기가 원수에 대한 두 여인의 복수를 통해 부친을 위한 딸의 孝와 주인을 위한 婢의 忠을 강조한 것임을 감안해볼 때, 두 처녀를 자매관계로 설정한 것보다는 주종관계로 설정한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이처럼 주종관계가 자매관계로 바뀌게 된 것은 야담 저자의 의도적 개작이라기보다 구비전승의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두 처녀의 부친(주인)이 죽게 된 계기도 각 유화마다 달리 설정되어 있다. ≪삽교만록≫에는 權勢家에게 滅門之禍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잡기고담≫에는 계모가 校生과 눈이 맞아 부친을 살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박소촌화≫에는 금강에서 도적에게 해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女俠>은 '부친이 누구에게 어떻게 죽었는가'를 중요한 흥미소로 설정하면서 그 세부 사항을 각기 다르게 그려놓고 있는데, 이것 또한 구전과정에서 나타난 부수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복수의 방법 면에서도 세 유화는 차이를 보인다. ≪삽교만록≫에서는 두 처녀가 權勢家의 집에 들이닥쳐 원수를 죽였으며, 주인 처녀는 복수 후에 자결한 것으로 나온다. 이에 비해 ≪잡기고담≫에는 원주의 여관에서 자고 있던 계모와 교생을 두 자매가 죽인 것으로 되어 있고, ≪박소촌화≫에는 마포의 배 위에서 자고 있던 도적의 괴수를 두 처녀가 밤에 들이쳐 살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잡기고담≫에는 복수를 완수한 뒤에 두 처녀가 종적을 감추어 버리는 것으로 설정해 놓았는데, ≪박소촌화≫에는 복수 후에 두 처녀가 곧바로 강물에 투신해 죽은 것으로 처리해 놓았다. 이와 같이 세 유화는 복수의 방법과 복수 후의 행동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만 ≪춘추≫·≪예기≫ 등에 천명된 복수의 의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강한 동질성을 갖는데, 바로 이 점이 <女俠>이 갖는 핵심적인 의미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세 유화 가운데 ≪박소촌화≫에는 이 이야기에 관한 정보가 비교적 상세히 밝혀져 있어서 주목된다. ≪박소촌화≫의 저자 이동윤은 이야기에 등장되는 정선비에게 鄭思孝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영조 무신년에 역모를 꾀하다가 경술년에 誅殺되었음을 밝히고 있다.[4] 그때 정씨 가문의 재산이 적몰되어 서적을 시장에 내다 팔 때 이 일을 상세하게 기록한 일기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두 처녀가 어느 집 여자인지 밝혀져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소개한 이야기는 친구 홍복일이 熊村에 사는 李天基라는 사람에게서 들은 것과 ≪鄭家日記≫를 직접 본 사람에게서 전해들은 것이라고 하여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 놓았다.[5] 이것으로 볼 때 <女俠>은 18세기 당시에 문헌과 구비로 함께 전승되면서 세인들의 주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유화가 파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女俠>의 말미에는 한결같이 평결이 붙어 있다. ≪삽교만록≫의 경우, 남의 종의 신세이면서도 자신을 保重하여 凡夫에게 가벼이 몸을 맡기지 않은 婢의 처신을 의롭게 여기는 데 그치고 있지만,[6] ≪잡기고담≫과 ≪박소촌화≫에서는 두 처녀가 복수를 실천한 일을 매우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있다. ≪잡기고담≫의 저자는 두 처녀가 보여 준 네 가지 기이한 점, 즉 신기한 검술, 아녀자로서의 용맹, 10여 년의 변복생활, 복수의 실천 등을 예로 들면서, 이들 자매의 복수야말로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를 체현한 것이라고 했다.[7] ≪박소촌화≫의 저자 또한 두 처녀가 원수의 배를 가르고 손발을 자르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를 실천한 일을 孝烈과 忠烈이라는 관점에서 높이 평가했으며, 정선비가 두 여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않고 그들을 구제하지 않은 일 때문에 殃禍를 받게 되었다고 했다.[8] 이처럼 ≪잡기고담≫과 ≪박소촌화≫의 저자는 이

---

4) 鄭思孝는 영조 무신년(1728년)에 전라감사로 있으면서 李麟佐와 내응했다는 죄목으로 경술년(1730년)에 物故되었다. 『영조실록』 권26, 영조 6년 5월 4일~5일조.

5) ≪박소촌화≫ 3권 56화 <女俠>, "鄭姓人旣死 其子思孝 謀逆伏誅於英廟庚戌歲 籍其産 賣書籍于市 有日記 記其事頗詳 而不言其誰家女子也…其主人 始不問其誰家女子 含默就睡 終亦不圖其濟尸 而任他泯沒 宜乎 天道之有殃 而畢竟覆墮其宗祀也…江上人傳其事 而莫知其誰 洪福一 嘗因江上人李熊川 細聞之 且嘗聞於目見鄭家日記者"

6) 이우성 · 임형택 역편, 『이조한문단편집』 중(일조각, 1978), 24쪽.

7) 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12(보고사, 1991), 281~282쪽.

야기 내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두 처녀가 행한 복수를 인륜의 차원에서 재단하여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삽교만록≫, ≪잡기고담≫, ≪박소촌화≫의 <女俠>은 겉으로 보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듯하지만, 그렇다고 그 같은 차이가 '여자의 몸으로 검술을 익힌 뒤에 부친을 살해한 원수를 끝까지 찾아내어 복수한다'는 이 이야기의 본질적인 성격을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세 유화는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핵심구조와 주제 등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세 유화는 동일한 근원에서 형성된 어떤 이야기가 구비전승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안석경·임매·이동윤은 이 이야기를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전해듣고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徽欽>은 ≪雜記古談≫, ≪樸素村話≫에 수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推奴를 나간 주인이 노비들의 거센 저항으로 피살될 위기에 처했다가 官에 보내는 편지의 끝에 '徽欽'이라는 암호를 써넣음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 노비들의 재산을 몰수해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잡기고담≫의 저자 任邁와 ≪박소촌화≫의 저자 李東允은 이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직접 전해듣고 기록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9] ≪박소촌화≫에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숙종 때의 인물인 丹巖 閔鎭遠의 推奴에 대한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

> 단암 민진원이 관서지방을 안찰하러 가면서 말하기를, "근래에 方伯된 자로서 다른 사람의 推奴를 막는 예가 허다한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노비가 주인을 배반하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배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一道의 風敎를 바르게 하려면 먼저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推奴를 하려는 자가 우선 營門에 도착하면 문을 활짝 열어 그들을 맞이하고, 빈객이 가득 차면 文券을 考究해서 해당 각 읍에 關節을 띄우되 노비를 推刷하여 營門에 보고토록 하고 노비 한 두 사람을 가두어 두었다가 주인이 와서 문서를 제시한 연후에야 그들을 석방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사리를 알고 깊이 헤아림이 이와 같다.[10]

---

8) ≪樸素村話≫ 3권 56화 <女俠>.

9) ≪잡기고담≫의 경우 "余聞百餘年前 貧弊士夫 爲推奴而遭害者"라 하였고, ≪박소촌화≫의 경우 "或云"이라고 하였다.

10) ≪樸素村話≫ 1권 155화 <徽欽>, "丹巖閔公 將出按關西 聲言曰 近者爲方伯者

위의 인용문은 17세기 당시 推奴를 바라보던 한 爲政者의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추노를 가로막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도망노비는 官의 힘을 빌려서라도 붙잡아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지하듯 숙종・영조 대에는 노비의 도망이 일반화되어 이들에 대한 主人家에서의 추쇄가 광범하게 행해지던 때였다.[11] 그 과정에서 각종의 비리와 폐단이 속출되어 급기야 私奴婢의 추쇄에 국가가 관여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던 바, 위의 인용은 바로 당시의 그와 같은 현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박소촌화≫의 저자 또한 조선후기 신분제의 혼란을 우려하여 사노비 추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잡기고담≫의 서두에도 조선후기 신분제의 혼란 속에서 노비들의 신분해방을 위한 저항이 어떻게 분출되고 있었던가를 간략히 진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의 노비법은 고려시대에 가장 엄해서 이름이 賤籍에 오른 자는 평민이 될 수 없었다. 조선시대에 와서 그 법이 고려 때만큼 엄하지는 않았지만 벼슬을 얻어 관리가 되지 못했고 良民과 賤民이 서로 혼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노비 가운데 富豪하고 强盛한 자는 백방으로 隱漏를 꾀하였고 심지어 그 주인을 살해하는 자도 있었다. 근세 이래로 法網이 해이해지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良賤의 경계가 거의 허물어져 버렸다.[12]

위의 인용은 조선후기 외거노비들의 신분해방에 대한 열망이 마침내 주인살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例多塞人之推奴 吾意則不然 爲人奴而叛主 是何異於爲人臣而背君乎 欲正一道風化 則不可不先治也 有欲推奴者 先到營門 遂洞開迎接 賓客盈門 考其文券 而行關于所抵各邑 使之旣推而報營門 囚其奴一二人 待其主歸而有書然後乃釋之 其識事理 能遠慮者 如此”

11) 정석종, 『조선후기사회변동연구』(일조각, 1983), 292~298쪽 ; 전형택, 『조선후기노비신분연구』(일조각, 1989), 188~201쪽.

12) ≪잡기고담≫ 제17화 <免禍>, “我國奴婢之法 在麗時極嚴 名在賤籍者 不得與平民齒 至本朝 其法之嚴 雖不如麗代 而亦不得仕宦爲吏 良賤不得相婚嫁 以此 奴婢之富豪而族黨强盛者 百計隱漏 至有殺害其主者 近世以來 法網解弛 至于今日 則良賤之界限 幾蕩然矣 余聞百餘年前”(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12, 320쪽).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비통제 능력을 상실한 주인이 외거노비를 찾아갔다가 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곤욕을 치른 사례는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바,[13] ≪잡기고담≫의 편자는 <徽欽>을 통해 그러한 현실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잡기고담≫과 ≪박소촌화≫에 수록된 <徽欽>의 내용은 동일하다. ≪잡기고담≫에 수록된 것이 ≪박소촌화≫의 그것보다 자세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유화는 임매·이동윤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전해들은 구전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둘 사이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두 유화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당시 구전 단계에서 다양한 각편이 파생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그 까닭은 <徽欽>이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요컨대 두 작가는 당시 떠돌던 <徽欽>을 단순 수용하되 조선후기 신분질서의 혼란에 대한 나름의 관점과 우려를 이야기 앞부분에다 첨가해 놓은 것이다.

<柳成龍의 癡淑>은 임란을 앞두고 平秀吉이 국내 사정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첩자를 한 異人이 미리 알고 처치했다는 내용이다. 임란 후의 민족적 자존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이야기는 ≪동패락송≫에 맨 처음 수록된 후에 ≪박소촌화≫, ≪파수록≫, ≪계서야담≫, ≪기문총화≫ 등에도 수용되었으며, 洪愼猷(1724~1784 이후)에 의해 <居士歌>[14]라는 한시로 창작되기도 하였다. 특히 <거사가>는 한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화에는 나오지 않는 독특한 삽화를[15] 수용함은 물론 구성이 치밀하고 주제적 의미도 분명하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면모를 보인다.[16] 이들 유화를 대조해 본 결과 직접적인 문헌 수

13) 지승종, 『조선전기노비신분연구』(일조각, 1995), 342~350쪽 ; 김용만, 『조선시대 사노비연구』(집문당, 1997), 369~386쪽.

14) <居士歌>는 洪愼猷(1724~1784 이후)가 지은 五言 122句의 장편 한시다. 홍신유는 18세기를 대표하는 여항시인이다. 그는 도시 하층민의 삶과 민족의 역사문화를 지향하는 장편 한시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이고 있는바, <居士歌>·<達文歌>·<秋月歌> 등은 그 중에서도 秀作으로 꼽히고 있다. 강명관, 「白華子洪愼猷의 시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제13집(한국한문학회, 1990).

15) 유성룡의 癡淑이 上京하여 유성룡의 집에 머물면서, 유성룡과 조정 관료들의 행동거지를 일일이 지켜보다가 그들의 무능함을 여지없이 비판하는 대목을 말한다.

16) <거사가>는 임형택 편역, 『이조시대 서사시』 하(창작과비평사, 1992, 87~92쪽)

수관계는 발견할 수 없었다. 때문에 만약 이들 사이의 차이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구전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 ≪동패락송≫에는 '어떤 재상의 치숙'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야담집에는 대부분 '유성룡의 치숙'으로 나와 있다. 김현룡은 이를 가리켜, 원래 어느 재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계서야담≫에서 유성룡으로 바꾼 것[17]이라 하였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임이 분명하다. 그 증거로 ≪박소촌화≫의 <유성룡의 형>과 홍신유의 <거사가>를 들 수 있다. <유성룡의 형>에는 '유성룡의 치숙'이 '유성룡의 형'으로 바뀌어 있고, 이야기의 말미에 서 "或曰 此非西涯之兄 乃其叔父 未詳孰是"[18]라고 하여 다른 이야기에는 '유성룡의 숙부'로 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거사가>에는 애초부터 '유성룡의 치숙'으로 설정해 놓았다. 이처럼 18세기의 유화에 이미 '어떤 재상의 치숙', '유성룡의 치숙', '유성룡의 형'이 모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재상'이 '유성룡'으로 바뀐 것을 반드시 19세기의 변화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柳成龍의 癡淑>은 이미 18세기의 구전단계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노명흠·이동윤·홍신유는 이 이야기를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전해 듣고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화들 간의 소소한 차이는 구전 단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2. 의도적 개작에 의한 변용

야담 작가가 구전이야기를 수용할 때에는 작가의 관점에 따라 원래의 이야기가 개작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는데, 앞서 소개한 <蜈蚣村>, <朴彦立>을 통해 그 구체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에 번역·수록되어 있다. <거사가>에 대해 임형택은 "야담으로 널리 전하는 이야기를 재료로 삼아 엮은 것"(앞의 책, 92쪽)이라 하였고, 진재교는 "야담과 한시가 교섭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였다(진재교, 「구비전통과 이조후기 한시의 변모」, 한국고전문학회 엮음, 『국문학의 구비성과 기록성』, 태학사, 1999, 471쪽). 그러나 <거사가>는 야담을 수용한 것이라기보다 18세기 당시의 구전이야기를 직접 수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7)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제6책(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219쪽.

18) ≪樸素村話≫ 1권 21화 <柳成龍의 兄>

<蜈蚣村>은 ≪송천필담≫, ≪박소촌화≫에 수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청주 蜈蚣村이란 지명의 유래를 설명한 전설이다. ≪박소촌화≫는 이동윤에 의해 1789~1795년 사이에 저술된 것임에 비해 ≪송천필담≫은 정확한 저작연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편자인 심재(1722~1784)의 생몰 연대로 보아[19] ≪박소촌화≫보다 먼저 편찬된 것만은 분명하다. ≪송천필담≫과 ≪박소촌화≫의 <蜈蚣村>은 李東允과 沈鋅가 청주 지역에서 전승되던 이야기를 각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듣고 기록한 것이다.[20] 蜈蚣村이란 마을의 지명유래를 설명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소한세설≫과 ≪한거잡록≫에도 수록되어 있는바, 이야기의 골격은 같지만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이 이야기는 오공촌 사람들이 지네에게 여자를 제물로 바치게 된 내력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옛날 청주 오공촌에 신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지네가 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水災·旱災·疾病 등의 재앙을 내리자,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 해마다 여자 한 명을 사서 제물로 바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내력 설명에 이어 다음과 같은 본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21]

> 한 士大夫家에 과부가 아들 한 명과 함께 살았는데 가난하여 생계를 잇지 못했다. 10여세 된 여종이 그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 주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神堂에 몸을 팔았다. 제삿날 주인이 몰래 신당에 가서 안을 엿보니, 들보 위에서 푸르고 붉은 기운이 나와 여자를 쏘았으며, 여자의 치마 안에서도 이상한 기운이 나와 들보 위를 향해 쏘았다. 이러기를 세 번 반복하니 들보 위의 기운이 점점 약해졌다. 이처럼 여자가 죽지 않은 것은 그가 기르던 두꺼비가 여자의 치마 속에 숨어 따라갔다가 기운을 토해내어 지네를 쏘았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여자가 神堂 有司에게 가니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했다. 여자는 유사에게 지네 제거 방법을 알려주어 마침내 지네를 모두 잡아 죽였으며 신당을 헐고 불태웠다. 그 후로는 마을에 아무 재앙이 없었다.

이 이야기는 人身供犧의 성격을 지닌 전설이라 할 수 있는데, ≪박소촌화≫

19) 이원걸, 앞의 논문.
20) ≪송천필담≫에는 출처가 나와 있지 않고 ≪박소촌화≫에는 "淸州人 諺傳其實"이라 되어 있다.
21) ≪박소촌화≫ 3권 172화 <蜈蚣村>을 예로 든 것이다.

의 <오공촌>은 ≪송천필담≫의 그것에 비해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송천필담≫에는 딸이 부모의 장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몸을 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소촌화≫에는 제물로 바쳐진 인물을 婢로 설정하여 그녀가 주인을 위해 忠을 실천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런 차이가 구전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박소촌화≫ 저자의 의도적 개작에 말미암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박소촌화≫에 유독 노비이야기가 많이 수록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22] 다음으로, ≪박소촌화≫에는 지네 퇴치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여자가 有司에게 알려준 방법은 "큰 가마솥을 갖추어 놓고 숯을 태워 기름을 끓이고, 쇠로 된 집게를 준비한 다음 들보를 헐어서 가마솥 안에 집어넣는 것"[23]이었다. ≪송천필담≫에는 이 부분이 없고, 두꺼비가 여자를 따라가서 이상한 기운을 토해내어 지네와 서로 싸우다가 둘 다 기운이 빠져 죽은 것으로 설정해 놓았다. 그런데 ≪박소촌화≫에는 두꺼비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네도 두꺼비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알려준 방법에 의해 사람들이 잡아서 죽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송천필담≫의 저자는 오공촌 전설을 자신이 전해들은 그대로 기록해 놓은 반면, ≪박소촌화≫의 저자는 항간에 떠돌던 오공촌 전설을 수용하되, 이를 슬기로운 여종이 주인의 가난을 구제한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다. ≪박소촌화≫의 저자 이동윤은 이야기의 말미에 ≪송천필담≫에는 없는 내용, 즉 "여자가 돌아가서 주인을 섬기니 그 주인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아들은 좋은 곳에 장가들게 되었다. 다시 그 婢를 부릴 수 없어 出嫁시켜 생업을 이루게 하였다."[24]라는 말을 덧붙여 놓았다. 충심으로 주인을 섬긴 데 대한 보상으로 이 부분을 특별히 마련했다고 볼 때, 그가 이 이야기를 忠婢談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이 더욱 확실해진다.

---

22) ≪박소촌화≫에는 이동윤이 구전이야기를 수용하되 이를 의도적으로 개작해 놓은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는데, <徽欽>(1권 155화), <朴彦立>(3권 179화), <長者淵>(3권 181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23) ≪樸素村話≫ 3권 172화 <蜈蚣村>, "女子乃謂有司曰…願備大釜 熾炭沸油 又備鐵執機 毁樑上 執投釜中 如此則庶無後患 村人如其言 果得二大者於樑 長幾尺 卽投油釜"

24) ≪樸素村話≫ 3권 172화 <蜈蚣村>, "女子復歸事其主 其主乃拔貧 孤子善娶婦 不復以其婢服役 嫁之而成其生業"

<朴彦立>은 18세기 당시 항간에 널리 유포되었던 李時白 妻家의 노복인 朴彦立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잡기고담≫, ≪학산한언≫, ≪박소촌화≫를 비롯한 많은 야담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각 유화들 사이의 편차도 큰 편이다.[25] 특히 위의 세 야담집은 18세기에 편찬된 것으로서, 여기에 수록된 <朴彦立>은 任邁·辛敎復·李東允이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전해들은 구전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들 세 편의 類話를 포괄할 수 있는 줄거리를 단락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彦立은 힘이 세고 사나워 상전의 말을 잘 듣지 않음
㈏ 상전이 죽자 직접 비용을 마련하여 정성껏 장례를 지냄
㈐ 주인 가족을 돌보며 부지런히 일하여 부자가 됨
㈑ 李時白을 천거하여 상전의 딸과 결혼시킴
㈒ 李時白이 反正을 도모하자 계책을 알려주고 만일을 대비함
㈓ 李時白이 反正에 성공하자 공주로 내려가 묘지기가 됨

이와 같이 <朴彦立>은 모두 여섯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와 ㈓는 각각 서두와 결말에 해당된다. 그리고 ㈏~㈒는 박언립의 행적을 나열한 것으로 각기 하나의 독립된 삽화를 이루고 있는 바, ㈏는 治喪揷話, ㈐는 致富揷話, ㈑는 婚姻揷話, ㈒는 反正揷話로 볼 수 있다. 각 삽화는 그 자체로 독립적이면서 삽화들끼리의 유기적 관련도 매우 긴밀하여, 이들이 한데 어우러짐으로써 朴彦立의 특이한 행적이 선명히 부각되고 있다. ≪잡기고담≫, ≪학산한언≫의 <박언립>은 그 내용이 대체로 일치된다. 그런데 유독 ≪박소촌화≫에 수록된 <박언립>은 위의 네 삽화 중에서 혼인삽화와 반정삽화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두와 결말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도 다른 유화들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첫째, ≪박소촌화≫ 소재 <박언립>은 상전 딸의 혼인 상대로 '李時白'이 아닌 그의 부친 '李貴'로 설정해 놓았으며, 奴名은 아예 밝히지 않았다. '이시백'을 '이귀'로 설정한 것은 이 유화만의 특징이며, 奴名을 밝히지 않은 것은 ≪잡기고담≫ 소재 <奇奴(1)>, <奇奴(2)>와 같다.[26] '이시백'이 '이귀'로 바뀐 것과 奴

25) 정준식, 「'朴彦立 이야기'의 변이양상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29집(한국문학회, 2001.12).
26) ≪잡기고담≫에는 <奇奴>라는 제명 아래 당시 떠돌던 '박언립 이야기'가 두 편

名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동윤이 그렇게 바꿀 만한 필연적 이유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그의 의도적 개작이라 하기는 어렵고, 그가 전해들은 이야기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야기의 구전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가 ≪박소촌화≫에 20여 편의 노비담을 수록하면서 奴名을 알고 있을 경우 그것을 일일이 밝혀 놓은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박언립>에서 奴名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가 전해들은 구전이야기 단계에서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박소촌화≫에는 노복의 상전을 仁同 張氏로 소개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다른 유화에는 나와 있지 않는 이 유화만의 특징이다.

둘째, ≪박소촌화≫ 소재 <박언립>의 혼인삽화와 반정삽화는 다른 유화들의 그것에 비해 매우 자세하고 특징적이다. 먼저, 혼인삽화에서는 장씨 집안의 노복이 직접 李廷華를 찾아가서 그의 아들 李貴를 상전의 딸과 혼인시킬 수 있도록 설득하여 일을 성사시킨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婚具와 새 집을 모두 노복이 마련한다. 主人家에서는 그의 공에 보답하기 위해 면천문권을 작성하여 놓아주려 했지만, 노복은 오히려 시집 간 주인 딸의 노비로 別給해 주기를 자청하여 兩家의 가산을 늘려 궁핍함이 없도록 했다. 이에 비해 다른 유화에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으며, 주인 딸의 혼인도 노복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서가 아니라 承旨로 있던 주인의 戚叔이 중매를 섬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다음, 반정삽화에서도 양자간에 중요한 차이가 발견된다. 다른 유화의 경우, 이시백이 이귀·김류 등과 반정을 도모하며 박언립에게 함께 참여할 것을 권하고 성공 여부를 물었는데, 박언립은 반정이 성공할 것이라 말하고 즉시 집을 나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무인도에 곡식을 마련해 두는 한편, 경강에 배를 대기시켜 놓고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박소촌화≫에는 이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그 대신 이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李貴가 노복을 통해 거사 일시를 정하는 대목이 새롭게 설정되어 있다.

이나 수록되어 있다. 편자 任邁는 두 이야기를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전해 들었다고 했으며, 18세기 당시 항간에 이 이야기가 상당히 널리 전승되고 있었다고 하였다. 정준식, 앞의 논문, 191쪽.

> 李貴가 동류들과 함께 反正 모의를 하고 다니자, 노복이 이를 알아차리고 수상히 여겨 李貴를 다그쳤다. 李貴가 처음에는 놀라며 칼로 노복을 위협하다가 결국 노복에게 사실을 말하고 거사 일시를 정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노복은 영남에 사는 정선비를 소개해 주며 그 집에 가서 하룻밤 묵고 오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라 하였다. 李貴는 그의 말대로 정선비를 찾아가 하룻밤 유숙하였는데, 괴물 같이 생긴 정선비의 두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엿듣다가 3월 12일 某時가 吉時라는 사실을 알고 인사도 없이 곧바로 돌아온다. 이귀는 정선비의 아들이 말한 그 일시에 거사하여 마침내 반정에 성공하게 된다.

이 대목은 다른 유화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박소촌화≫ 소재 <박언립>만의 특징이다. 여기서 정선비의 두 아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인조반정이 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점인데,[27] 이는 곧 이동윤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송시열, 권상하, 한원진으로 이어져 온 老論 湖學系의 학통을 계승한 자로서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비범한 능력을 지닌 정선비의 두 아들을 설정해놓은 것이다. 물론 그가 이렇게 한 데에는 그 자신 反正으로 등극한 中宗의 5男인 德陽君 李岐의 후손인 점도[28]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박언립>은 노복 언립의 특이한 행적을 다룬 이야기로서 18세기 당시 세간에 널리 회자되면서 다양한 각편이 존재했던 것이다. ≪잡기고담≫, ≪학산한언≫의 <박언립>이 유사한 구전 내용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것임에 비해, ≪박소촌화≫의 <박언립>은 구비전승을 토대로 삼되, 여기에 저자의 의도적 개작이 가미된 결과 다른 유화와는 크게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

27) ≪樸素村話≫ 3권 179화 <朴彦立>, "兩童相語曰 汝知彼客乎 弟曰 李貴也 兄曰 來何故也 弟曰 方欲得反正吉日而來矣 兄曰 汝亦能知之矣 然則何日爲吉 弟曰 三月十二日某時吉矣 兄曰 日則可 時則不可 此時稍急而事難卽成 某時爲吉 弟曰 果然 忠定穴窓窺見 則兩箇奇男子也 非復日夕之兩物…曰吾事可成乎 曰可成矣"

28) 『中宗子孫錄 德陽君派 世譜』에 의하면 李東允은 중종의 다섯 째 아들인 李岐의 9世孫으로 되어 있다.

3. 구비전승에서의 변화와 의도적 개작의 결합

야담 작가가 구비전승을 수용할 때에는 이미 구전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은 이야기를 접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야담 작가가 그 이야기를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하더라도 다른 야담집의 유화와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검토할 작품은 구전 과정에서 일차적인 변화를 겪은 이야기가 야담 작가에 의해 다시 개작된 경우이다. 이에 해당되는 작품으로는 <復讐說>, <達文> 등이 있다.

<復讐說>은 李光庭(1674~1756)의 『訥隱集』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安錫儆(1718~1774)의 ≪삽교만록≫과 辛敦復(1692~1779)의 ≪학산한언≫에도 올라 있다. 세 문헌에 수록된 이야기는 도망노비를 찾아간 주인이 집단으로 저항하는 노비들의 반발에 부딪쳐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叛奴 딸의 변장을 통한 대리희생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후에 官에 고변하여 반노 일당을 처벌했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 유화는 동일한 상황에서 발생된 사건을 매우 유사하게 그려놓고 있지만, 『눌은집』의 <복수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삽교만록≫, ≪학산한언≫의 그것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눌은집』 소재 <복수설>의 서두에는 가난을 타개하기 위해 推奴를 간 주인이 반노에게 살해된 상황이 설정되어 있고, 그런 다음 그의 아들이 성장하여 2차 추노를 단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차 추노가 가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면, 2차 추노는 부친을 살해한 반노에게 복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추노의 주체가 '아버지→아들'로 이어지면서 추노의 목적이 '가난타개→복수'로 변이되는 모습은 다른 유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복수설>만의 특징이다. 다른 유화의 이 부분은 가난한 주인이 身貢을 거두기 위해 도망노비를 찾아간 것으로만 그려져 있다.

둘째, 『눌은집』 소재 <복수설>에는 2차 추노를 간 주인의 아들이 반노의 딸과 혼인하는 대목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다른 유화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 호남지역을 걸식하며 다니다가 한 선비를 만나 그의 집에 의탁하며 지내게 된다. 그가 성장하자 선비는 그를 이웃에 사는 부자의 딸과 혼인시켰는데, 그 부자는 바로 아이의 부친을 살해한 叛

奴였다. 이처럼 『눌은집』 소재 <복수설>에는 주인의 아들과 반노 딸의 혼인이라는 기막힌 사건이 설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다른 유화에는 노비들이 주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들의 딸들 중에서 한 명을 골라 주인 방에 들여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노비들이 주인살해 음모를 숨기기 위해 꾸민 일종의 미인계인 셈이다.

셋째, 『눌은집』 소재 <복수설>은 아들의 신분이 반노에게 노출되어 죽을 위기를 맞는 상황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유화에는 이 부분이 없다. 주인의 아들이 반노의 사위가 된 다음, 그의 장인이 다른 사람과 訟事할 일이 있어 집안에 감추어 둔 문서를 사위에게 보이며 소용되는 것을 고르게 했다. 그런데 그 문서는 아들의 부친이 손수 쓴 것으로 부친의 성명과 필적이 갖추어져 있었다. 아들이 매우 놀라 이 사실을 선비에게 몰래 알렸는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 반노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눌은집』 소재 <복수설>은 다른 유화와 달리 주인의 신분노출 과정 및 죽을 위기에 처하는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눌은집』 소재 <복수설>은 '아버지→아들'로 이어지는 2대에 걸친 추노과정을 설정함으로써 ≪삽교만록≫·≪학산한언≫의 유화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비해 ≪삽교만록≫과 ≪학산한언≫에 수록된 <복수설>은 이야기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볼 때 『눌은집』 소재 <복수설>과 ≪삽교만록≫·≪학산한언≫의 그것은 별로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평결을 보면 이들이 동종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이광정·안석경·신돈복은 한결같이 평결을 통해 한 몸으로 충·효·열의 삼강을 동시에 실천한 반노 딸의 행위를 찬양하고 있는데,[29] 그 어조가 너무도 흡사하다. 만약 이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였다면 이처럼 한결같은 평가가 내려지기 어려웠을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세 유화는 동일 근원에서 발생된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이광정은 <복수설>이 당시의 구전에서 나온 것이라 하였고, 안석경은 이 이야기를 변사행에게

29) "遠近聞者 莫不嘉生以童者出家 卒能報其父仇 而益奇其女以爲三綱集乎一身 盖以女代其夫死則烈 而脫父死則爲孝 濟主於難而復其讐焉則忠云"(李光庭, 『訥隱集』 권6 雜著), "以孝女忠婢烈女之備而旌其女"(安錫儆, ≪雪橋漫錄≫), "此女 爲其主遂其忠 爲其夫成其烈 爲其父立其孝 一擧而三綱具矣 本邑立碑旌焉"(辛敦復, ≪鶴山閑言≫).

전해들은 것이라 하였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눌은집』, ≪삽교만록≫, ≪학산한언≫에 수록된 <복수설>은 당시에 구전되던 이야기를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수용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눌은집』의 <복수설>만 유독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은 구전과정에서 이미 그 같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며,[30] 여기에다 구비전승에 대한 이광정의 개작의식도 어느 정도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31] <達文>은 영조 때의 실존 인물이었던 達文에 관한 이야기이다. 達文은 1764년에 李麟佐의 殘黨인 李太丁의 역모에 연루되어 영조의 親鞫을 받았지만, 그 일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대신 머리가 반백인데도 총각의 모습으로 꾸며 인심을 현혹시키고 풍속을 어지럽힌 죄로 鏡城으로 遠配된 인물이다.[32] 그가 유명 인물로 장안의 화제를 모은 것은 약국에서 일어난 일 때문인데, <達文>은 이 약국 사건을 주된 모티프로 삼은 이야기이다.

약국 주인의 돈을 훔친 것으로 의심을 받다가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 누명을 벗게 되었다는 내용의 <達文>은 박지원의 <광문자전>[33]을 비롯해 이옥의 <장복선전>, 조수삼의 ≪추재기이≫, 이동윤의 ≪박소촌화≫ 등에 수록되어 있고 洪愼猷(1724~1784 이후)에 의해 <達文歌>라는 五言 154句의 장편 한시로 창작되기도 하였다.[34] 이들은 실존 인물 達文의 행적을 다룬 이야기이면서

30) 『訥隱集』에 수록된 <復讐說>의 말미에는 "但其事 出於傳聞 不知其是與否 而傳之者 愈多愈久而無異口 豈虛也哉"라는 이광정의 언급이 나와 있다. 이광정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에도 그 내용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은 ≪삽교만록≫, ≪학산한언≫의 <복수설>과는 상당한 차이를 지닌 유화가 이광정 주변에서 상당히 널리 전승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31) 이광정의 『訥隱集』에는 ≪亡羊錄≫이라는 寓言集과 주목을 요하는 여러 편의 전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그의 작가적 재능이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秀作들이다.(金泳, 『朝鮮後期 漢文學의 社會的 意味』, 집문당, 1993). 이렇게 볼 때 그가 <復讐說>을 부연·개작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32) 『영조실록』 권103, 영조 40년 4월 17일조.

33) <광문자전>은 후에 ≪동야휘집≫에도 수용되었다. ≪동야휘집≫의 <達文>은 <광문자전>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뒷부분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 놓았다.

34) 이 시는 임형택이 編譯한 『이조시대 서사시』 하(창작과비평사, 1992, 284~291쪽)에 소개되었고, 강명관이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창작과비평사, 1997, 296~304쪽)에서 다룬 바 있다.

도 이야기의 구성과 디테일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직접적인 문헌 수수관계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 말은 곧 이들 이야기가 각기 당시의 구전을 바탕으로 삼아 독자적으로 성립되었음을 뜻한다. 각 유화에 따라 달문의 성명이 광문(광문자전)·이달문(추재기이)·구달문(장복선전)·정달문(박소촌화)·달문(달문가) 등으로 되어 있고, 훔친 물건도 돈(광문자전·박소촌화)·인삼(추재기이)·백금(장복선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외에도 물건이 없어진 경위와 달문의 신분 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구비전승 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들 유화가 구비전승에 토대를 둔 것임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런데 <장복선전>, ≪박소촌화≫, ≪추재기이≫의 <達文>은 약국 사건을 중심으로 한 단순구성을 보이는 데 비해 <광문자전>, <달문가>는 달문의 행적을 다채롭게 소개하면서 그의 인생유전 과정을 매우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달문가>는 거지-도시 연희패-거간-기부(妓夫) 등으로의 변전을 겪는 달문의 일생을 통해 18세기 도시 유흥의 한 단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은 물론, 한 변두리 인간의 주체성을 효과적으로 부각[35]하고 있는바, 이야기의 구성방식과 주제의 측면에서 박지원의 <광문자전>과 궤를 같이한다. 위의 유화들이 18세기 후반이라는 거의 동시대에 문헌에 수용되었음에도 이러한 차이를 보이게 된 까닭은 당시 달문에 관한 이야기가 널리 전파되는 가운데 이미 구전 단계에서 다양한 각편이 파생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박지원·홍신유와 같은 걸출한 작가에 의해 윤색되면서 새로운 면모를 띠게 되었기 때문이다.

Ⅲ. 동일 구전이야기 수용의 야담 형성적 의미

야담문학사에서 18세기를 야담의 발전기로 보는 데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전대의 ≪어우야담≫을 계승한 ≪천예록≫, ≪동패락송≫, ≪매옹한록≫, ≪풍암집화≫, ≪학산한언≫, ≪삽교만록≫, ≪잡기고담≫, ≪송천필담≫, ≪박소촌화≫ 등이 산출되어 야담이 질적 향상과 양적 팽창을 꾀하는 한

35) 강명관, 앞의 책, 304쪽.

편 장르적으로도 더욱 성숙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런데 18세기의 야담 중에는 각 야담집 저자의 견문을 바탕으로 삼은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이루고 있으며, 전대문헌을 수용한 것은 이보다 훨씬 적다. 예컨대, 위에 든 야담집 중에서 ≪매옹한록≫, ≪풍암집화≫, ≪송천필담≫은 저자의 견문을 바탕으로 삼은 것보다 전대문헌을 수용한 것이 더욱 많지만, 그 외의 야담집은 오히려 저자의 견문을 바탕으로 삼은 것이 대부분이며 전대문헌을 수용한 흔적은 극히 미미하다. 때문에 18세기 야담의 형성과정을 실상에 맞게 究明하기 위해서는 야담의 형성에 관한 기존의 '강담형성설'[36]과 '전대문헌 수용설'[37]을 함께 고려하면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38]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의 정밀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18세기 야담집이 동일 구전이야기를 공유한 사실이 야담의 형성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를 몇 가지 항목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야담의 형성경로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8세기 당시 시정에서 널리 전승되던 동종의 이야기가 여러 야담집에 동시에 수용되었다는 점이다. 앞장에서 검토된 <女俠>, <蜈蚣村>, <朴彦立>, <徽欽>, <復讐說>, <達文>, <柳成龍의 癡淑>은 모두 항간에서 구비로 전승되다가 18세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문헌에 오른 작품들이다. 이처럼 구전되던 어떤 이야기가 동시대의 여러 야담집에 함께 수용되는 현상은 18세기에 와서야 빈번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야담이 강담을 수용하면서 형성되었다는 임형택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초기 야담일수록 전대문헌을 수용하기보다 저자의 견문을 바탕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더 이상 贅言을 요하지 않는데, 18세기 야담집이 동일 이야기를 공

36) 임형택, 「漢文短篇 形成過程에서의 講談師」, 『創作과 批評』 제13권 3호(창작과비평사, 1978).

37) 김상조, 「야담의 강담형성설 비판과 전대문헌 수용」(정명기 엮음,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1, 보고사, 2001).

38) 임형택의 강담형성설은 초기야담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으며, 김상조의 전대문헌 수용설은 주로 19세기 야담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야담의 형성경로에 관해서는 이 외에도 야담 저자가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일을 기록한 경우, 강담과 전대문헌을 함께 수용한 경우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유한 사실을 통해 이 점을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라면 누구에 의해서도 쉽게 문헌에 정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18세기의 야담집 저자들이 그만큼 세간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저자의 견문을 바탕으로 삼은 야담일 경우 그 자체로 독창성을 지닌 이야기일 가능성이 더 크지만, 이처럼 동일 이야기를 동시대의 여러 야담집이 공유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고에서 다룬 7종의 이야기를 통해 한 이야기의 유화는 구비전승의 과정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야담 작가의 부연·개작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눌은집≫의 <복수설>, ≪잡기고담≫의 <박언립>, ≪박소촌화≫의 <유성룡의 형>은 모두 저자가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강담 내용을 충실히 기록한 것인데도 다른 문헌에 수록된 유화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18세기 당시 항간에 널리 떠돌던 구전이야기가 구전 단계에서 이미 다양한 각편을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야담 저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해듣느냐에 따라 동종의 이야기라도 내용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박소촌화≫의 <오공천>, <박언립>은 다른 문헌에 수록된 유화에 비해 개작의 흔적이 농후하며, 연암의 <광문자전>도 다른 문헌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창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한 이야기의 다양한 유화가 야담 저자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도 생겨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때문에 한 이야기에서 다양한 유화가 파생되는 과정과 원인을 다룰 때는 이러한 점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18세기 야담의 형성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구비전승과 문헌전승이라는 두 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초기야담에서 18세기까지의 야담은 저자의 견문을 토대로 삼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구비전승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구비전승이 기록으로 정착되는 데 반드시 강담사라는 존재를 그 매개자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남아있다. 예컨대, 18세기의 야담집인 ≪천예록≫, ≪잡기고담≫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는 저자 任堕과 任邁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주종을 이룬다. 그에게 이야기를 전해준 자들은 전문적인 강담사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 점은 구비전승에 토대를 두고 저술된 야담집이면 어느 것이든 마찬

가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전이야기가 야담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다룰 때 강담사의 존재를 반드시 설정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한편, 문헌전승에 의한 야담 형성은 19세기에 와서 일반화된 방식임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시기에도 구비전승의 맥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전대문헌의 전재 혹은 변용에 의해 또 다른 야담집이 생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구비전승과 문헌전승은 야담 형성의 두 축이지만, 18세기에는 구비전승의 측면이, 19세기에는 문헌전승의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강담형성설'과 '전대문헌 수용설'이라는 엇갈리는 두 주장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야담문학사에서 볼 때 18세기는 전 시기의 ≪어우야담≫을 계승한 여러 야담집의 출현으로 야담이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을 이루던 시기였다. 17세기에 형성된 야담이 어떤 계기에 의해 19세기에 와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는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세기의 야담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18세기 야담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동일한 근원에서 생겨난 구전이야기가 18세기의 여러 야담집에 공통적으로 수용된 현상에 주목하여 그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야담의 형성과 관련하여 짚어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검토한 <女俠>, <蜈蚣村>, <朴彦立>, <徽欽>, <復讐說>, <達文>, <柳成龍의 癡淑>은 모두 조선후기에 구비로 전승되다가 18세기에 이르러 여러 문헌에 정착된 이야기이다. 이들이 동일 시기의 여러 야담집에 함께 수용되어 있는데도 각 야담집 사이의 직접적인 수수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으로 볼 때, 이들 이야기는 18세기의 야담 작가들이 누군가로부터 직접 전해듣고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 이야기가 동일한 시기의 여러 야담집에 함께 수용된 사실은 전에 없던 일이라 할 수 있는바, 이는 18세기의 야담이 구비전승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결과이다. 본고에서 검토한

작품은 ≪천예록≫, ≪동패락송≫, ≪학산한언≫, ≪삽교만록≫, ≪잡기고담≫, ≪박소촌화≫ 등에만 집중적으로 수용되어 있고 ≪매옹한록≫, ≪풍암집화≫, ≪송천필담≫ 등에는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 전자는 당시의 구전이야기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반면, 후자는 전대문헌을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본고의 논의에서 얻은 결론은, 18세기의 야담 저자들이 당시 항간에 널리 떠돌던 구전이야기에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이를 여러 문헌에 동시에 수용했다는 점, 동일 구전이야기의 각 유화는 구비전승의 과정·야담 작가의 개작·구비전승과 개작의 결합이라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파생된 것이라는 점 등이다. 이러한 결론은 야담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야담의 형성과정에 관한 기왕의 논의는 '강담형성설'과 '전대문헌 수용설'이 맞서 있는 실정이다. 야담은 구비전승과 문헌전승이라는 두 축이 함께 작용하여 생성된 것이지만, 18세기 야담의 경우 전대문헌의 수용보다 구전이야기의 수용이 일반화된 방법이었다. 그런데 전대문헌을 수용하든 구전이야기를 수용하든 그 수용의 실제적 양상은 매우 복잡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전대문헌을 수용할 경우 전재, 축약, 부연, 개작 등에 의해 다양한 유화가 파생될 수 있고, 구전이야기를 수용할 경우 이미 구전단계에서 다양한 각편이 생겨났을 수도 있으며 야담 작가가 이를 전재, 축약, 부연, 개작하는 가운데 새로운 유화가 발생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문헌전승과 구비전승의 결합에 의해서도 또 다른 유화가 생겨날 수 있다. 야담의 형성과정을 살필 때에는 이런 가능성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마땅할 터, 18세기 야담을 통해 그 구체적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야담의 형성과정을 실상에 부합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18세기의 야담집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보다 유익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구비전승, 문헌전승, 18세기 이야기 책, 야담의 형성과정

참고문헌

<자료>

신돈복, ≪학산한언≫(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편, 『한국문헌설화전집』 8)

심 재, ≪송천필담≫ (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19)

이광정, 『눌은집』, (계명문화사 영인)

이동윤, ≪박소촌화≫(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임 매, ≪잡기고담≫(정명기 편, 『한국여담자료집성』 12)

임형택 편역, 『이조시대 서사시』 하, 창작과비평사, 1992.

이우성 · 임형택 역편, 『이조한문단편집』 중 · 하, 일조각, 1978.

<논저>

강명관, 「백화자 홍신유의 시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제13집, 한국한문학회, 1990.

-----,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7.

김상조, 「≪학산한언≫ 연구」, 『국문학보』 13, 제주대 국문학과, 1995.

-----, 「야담의 강담형성설 비판과 전대문헌 수용」, 정명기 엮음,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1, 보고사, 2001.

김 영, 『조선후기 한문학의 사회적 의미』, 집문당, 1993.

김용만, 『조선시대 사노비연구』, 집문당, 1997.

김준형, 「야담 연구사」, 정명기 엮음,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3, 보고사 2001.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제6책,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이원걸, 「≪송천필담≫ 연구」, 『안동한문학논집』 제4집, 안동한문학회, 1994.

임형택, 「한문단편 형성과정에서의 강담사」, 『창작과 비평』 제13권 3호, 창작과비평사, 1978.

전형택, 『조선후기 노비신분 연구』, 일조각, 1989.

정석종, 『조선후기 사회변동 연구』, 일조각, 1983.

정준식, 「'박언립 이야기'의 변이양상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29집, 한국문학회, 2001.

-----, 「≪박소촌화≫의 저작자와 저작연대」, 『어문연구』 39, 어문연구학회, 2002.
지승종, 『조선전기 노비신분 연구』, 일조각, 1995.
진재교, 「≪잡기고담≫의 저작연대와 작자에 대하여」, 『서지학보』 제12호, 서지학회, 1994.
-----, 「≪천예록≫의 작자와 저작연대」, 『서지학보』 제17호, 서지학회, 1996.
-----, 「구비전통과 이조후기 한시의 변모」, 한국고전문학회 엮음, 『국문학의 구비성과 기록성』, 태학사, 1999.

<Abstract>

The common ownership and the meaning of circulating story in the 18th story book.

Jung, Jun-Sik

In the light of historical romance literature, the 18the century had greatly the quality development and the quantity improvement of historical romance with the advent of various story books succeeding to the 「Eo Uoo Ya Da m」 all over that period. To understand how the 17th century historical romance book could take an active part in the 19th century, the study of 18th century's historical romance book was inevitable. But the study at that time wasn't active so much. This thesis tried to comprehend and clarify the forming process of 18th century story books. It focused on the situation that the circulating story produced by identical origin came into the various story books of the 18th century in common, examined the specific shapes, and scrutinized the meaning of historical romance.

Through the argument of this thesis, it had the conclusion that story writers in the 18th century had a common interest in the popular circulating story at that time, the identical stories was made by the addition and remaking of the writers as well as by the circulating process of stories by mouth. Also, the 18th century story was formed by two parts such as oral tradition and documents tradition, but the way of oral tradition was more common than that of the former documents. When we think this thesis collectively, the 18th story book which two parts of oral tradition and documents tradition could be captured in together have to be the subject of study to identify the forming process of circulating story corresponding to the reality.

Key word: oral tradition, documents tradition, 18th story books, a forming process of Yadam, the circulating process of stories